네팔불교협회 다큐멘터리시사회 영상메세지

한국불교와 인연이 깊은 네팔 국민과 불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의 많은 불자들은 네팔을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땅,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부처님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불자들은 평생에 한번이라도 부처님의 성지인 네팔 방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가 네팔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회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불교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지인 네팔이 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네팔 불자들과 한국 불자들의 법연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비롯한 각종 교류행사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오늘의 네팔에서 더욱 성스럽게 피어나기를 함께 발원하겠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제작과 홍보에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수행의 정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